

올해로 창립 11년째를 맞고 있는 포스데이타는 현재 850여명의 전문인력에, 자본금 3백50억원, 매출액 1천8백여억원의 기업이다. 포스데이타의 주력 사업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주는 것이다. 즉, 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 모든 정보관련 기술을 활용,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것이다. 곧 정보화와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디지털시대의리더 포스데이타

포스데이타는 포항제철이 정보화시대를 대비해 89년에 설립한 정보기술(IT)전문업체다. 포항제철이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철의 생산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했듯이 포스데이타는 정보화사회에서 모든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11년째를 맞고 있는 포스데이타는 현재 850여명의 전문인력에, 자본금 3백50억원, 매출액 1천8백여억원의 기업이다. 포스데이타의 주력 사업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주는 것이다. 즉, 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 모든 정보관련 기술을 활용,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것이다. 곧 정보화와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철강 및 제조부문 정보화 기술 세계적 수준

포스데이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컨설팅,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 아웃소싱,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워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포스데이타가 가장 중점을 두

고 있는 분야는 철강 및 제조·공공기관, 통신 및 유통서비스 분야의 정보화로, 해외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철강 및 제조분야의 정보화에 있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 정보화, 대학 정보화, 인터넷 등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데이타가 그동안 철강·제조분야에서 정보화를 수행한 기업으로는 현대강관, 동부제강, 한보철강, 동국산업, 강원산업, 창원특수강, 한국타이어 등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특허청, 성남시, 포항시, 조선일보,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수많은 기관의 정보화를 추진, 국가 정보화에 앞장서 왔다. 포스데이타는 해외사업도 매우 활발해 그동안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집트, 중국 등에 진출해 왔으며, 이는 업계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에는 국내 SI업계 최초로 인도 타타제철소에 정보기술 컨설팅 수출을 추진해 대외적으로 포스데이타의 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 독자적인 솔루션 개발 활발

포스데이타는 자체 솔루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다. 포스테이타가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세계 최초의 철강생산관리 패키지인 「STEELPIA」, 철강 인터넷 EDI/EC시스템인 「EC-MASTER」, BPR방법론인 「POS-BPR」, 객체지향방법론 「POS-ODDM」,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인 「POS-Watch」, S/W 제작지원 툴 「EasyTier」, 설비관리시스템 「EasyFM」, 엔드유저용 통계분석 툴 「Infominer」, 중소기업용 ERP 패키지 「POS-ERP」 등 다양하다.

컨설팅에 필수적인 방법론에서 부터 S/W 제작지원 툴, 개별 단위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STEELPIA」는 세계시장을 겨냥해 2년여의 개발 끝에 '99년 8월에 완료한 것으로 포스테이타의 철강분야 SI 노하우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포스테이타는 「STEELPIA」를 지난 1월 인도 ISPAT제철에 단건 수출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3백만 달러에 수출하기도 했다. 「STEELPIA」의 우

수성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셈이다. 「EC-MASTER」 또한 세계 최초로 Web EDI, Mail EDI, FTP EDI를 통합한 솔루션으로 '99년 10월 런던에서 열리는 CALS/EC International '99에 관련기술이 발표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포스테이타는 학교, 연구소는 물론 선진기업들과 차별화된 솔루션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항공대를 비롯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오라클,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기관이다.

포항공대와는 인터넷 기반의 철강전자상거래시스템과 자바(JAVA) 기반의 메시징 엔진, 철강 EC를 위한 보안·인증시스템 등을, 그리고 RIST와는 창고 자동화 요소기술, 오라클과는 지식관리시스템(KMS), CALS/EC, 데이터웨어하우스, 모빌 컴퓨팅, 펜타시큐리티시스템과는 통합 정보보호 솔루션을 각각 개발중이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올초에 각각 선보일 예정으로 이렇게 될 경우 포스테이타는 경쟁



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Culture 창달에 노력

포스데이타가 수행하는 사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으로, 직원들의 창의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포스데이타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복장은 물론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직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연봉을 받는 전직원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직제도를 도입, 개개인이 전문분야를 선정,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내기술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과정인 POS-SEC(POS-DATA Senior Engineer Course)는 DB, 네트워크, S/W공학 등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법, 영어회화,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사 양성과정을 설치, 직원들의 기술사 자격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은 매년 2차례에 걸쳐 선발, 약 7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통신강좌와 사내 합숙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도입,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급시스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POS-QMS)을 통해 지난 '95년에 ISO 9001 및 TickIT 인증을 획득,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영업대표(MR; Marketing Representative)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들에게는 영업성과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하게 된다.

### 인터넷 및 해외시장 적극 공략

포스데이타는 그동안 외적성장 보다는 질적성장을 바탕으로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외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특히 인터넷 분야와 공공, 해외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을 통한 기업공개를 통해 선진경영체제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인터넷 사업은 포스데이타가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로, 사업구조 자체를 인터넷 중심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무선 인터넷 지리도형정보서비스와 포항 및 광양 주택단지 인터넷 서비스를 오는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포항 및 광양 인근지역의 사이버 시티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도 수립중에 있다.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호스팅서비스, 웹 기반의 업종별 솔루션 개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인터넷 사업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해외사업도 보다 활성화한다는 것이 포스데이타의 전략이다. 그동안 해외사업이 철강업체의 정보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앞으로는 이를 공공부문과 GIS, 의료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데이타는 앞으로 진출국가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 정부의「MSC (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인 「MSC Status」 획득을 기초로 이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것이다. 포스데이타는 SI 프로젝트이 외에도 「STEELPIA」, 「POS-Watch」 등 솔루션에 대한 해외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철강생산관리패키지인 「STEELPIA」의 경우 올해 초 인도 시장 진출을 계기로 동남아지역은 물론 사우디, 이란, 터키 등 중동지역에까지 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영상감시 시스템인 「POS-WATCH」의 해외판매를 위해 파트너사인 SK상사와 협력, 시장공략에 나서는 한편, 미국에서 열리는 컴덱스 쇼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지난해 포스데이타는 공공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그 여세를 몰아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정부 투자기관 등의 시장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아웃소싱사업을 보다 강화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H/W, N/W, 통신운영 등 분야별 아웃소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데이타는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최신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연구개발 및 선진업체와의 제휴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개발 또는 도입할 기술로는 인터넷을 비롯해 ERP, SCM, CALS/EC, 정보보안 등으로, 산학연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은 물론 전문기업들과 협력,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의 컨설팅 및 IT 전문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한편 전문요소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 파트너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인력 구조도 컨설팅과 시스템 설계, 요소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문화에 적합한 인재육성체제를 구축, 운영할 것이다.

포스데이타는 이러한 사업 및 기술전략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정보기술 리더기업으로 재도약한다는 계획이다.